

##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남성의 노동분배

-남성들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차성란(대전대학교 부교수)

신문기사나 우리 주변의 생활상을 통해보면 남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의 시간분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변화에 저항하는 힘을 느낄 수 있으며,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접하게 되면 '진정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같은 과도기적 현상의 중심에서 있는 현시점에서 남성들의 노동시간분배에서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본다는 것은 건강가정이라는 최근의 이슈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관심 연구주제라 하겠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의 흐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단정적인 주장을 하는 내용이 연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실이나 이론이 아님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년자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성들 또한 성별을 근거로 한 노동분담에 의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도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년남성의 자살에 있어 가정생활에의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이차자료를 이용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출처에 대한 제시가 누락된 곳이 많아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을 더욱 크게 만든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수치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앞의 사례와 연관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근 60세 이상의 노년자살이 전체 자살의 30%"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년자살의 실태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남성노동변화와 가사노동의 참여경향'을 다루는 부분에서 IMF 이후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던 노동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IMF 해고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장노동진입은 계속 증가하였고 남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여성영역으로 여겨졌던 시장 일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여성들의 시장노동진입의 지

속적인 증가는 특별히 IMF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IMF 훨씬 이전인 1980년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보아도 여성 취업을 증가는 이미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남녀의 취업증가율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남자	0.9	2.6	0.9	0.7	0.9	2.7	2.2	4.3	3.7	3.1	2.9	3.8
여자	0.1	2.4	5.2	1.1	-2.7	5.4	5.7	7.3	2.4	5.6	3.1	2.1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남자	2.2	1.1	3.0	2.7	1.7	1.1	-5.1	0.9	3.6	1.6	2.9	0.7
여자	1.5	1.4	3.6	3.1	2.8	2.7	-7.3	3.1	5.2	2.5	2.6	-1.3

출처: 통계청([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남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여성영역으로 옮겨졌던 시장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성들이 여성영역에의 도전 보다는 그 반대, 즉 여성의 남성영역에의 도전사례를 더 자주 접한 기억이 있다. 남성들의 여성영역에의 도전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시간분배의 변화가능성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부문에서 남성의 특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아버지 역할에 관한 다양한 고찰과 연구는”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고찰과 연구에 대한 참고문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야간에 행하는 행사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라고 했다. 확대되는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추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문헌을 제시했어야 했다.

새로운 정책시행의 효과 부분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집밖으로만 나돌던 직장인을 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조선일보, 2005년 6월 25일자). 하루를 마음껏 놀아도 하루가 남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성들은 자연 집안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여성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일수는 있다. 하지만 이중역할로 인해 시간부족을 느끼는 취업주부 가정에서 보여지는 남편들의 여전히 변치않는 가사노동시간이나 직장에서 돌아온 아내가 바쁘게 저녁준비를 하고 있어도 집에 있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이나 TV를 보며 빨리 밥먹자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오클리 저, 문숙재 역, 1988)을 우리는 쉽게 그릴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남성들의 가정내 거주시간과 가사영역에의 관심간의 인과관계를 단정지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연구방법상의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통계청 자료와 노동부 자료 그리고 일간신문 5개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한다고 언급했다. 신문기사를 이용한 내용분석은 분명 연구방법으로 채택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단지 신문기사를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이며 내용분석을 한 것이라 보기에 어렵다. 내용분석은 두가지 유형 즉 명시적 내용분석과 잠재적 내용분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양적인 방법, 후자는 질적인 방법이다. 양적인 방법을

통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이라면 남성의 가사노동, 시장노동과 관련하여 단어, 문장 등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인 방법이라면 이차자료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맥락을 분석하여 잠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잠재적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했어야 했다(A. Tashakkori & C. Teddlie 공저, 염시창 역, 2001).

연구는 연구자들이 설정한 연구문제를 일차, 이차 자료 등을 통해 가설 내지는 가정을 증명함으로써 이전 연구들의 이론을 더욱 확고히 다지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주장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신문기사의 내용을 사용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기사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어떤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직접 대비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제 연구에서 인용한 신문기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7월 현재 461만 명인데, 이중 사유가 ‘가사’인 사람이 11만 1천명에 이르고 있으며”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 기사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이를 두고 있으면, ‘육아’로 그렇지 않으면 ‘가사’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분류하고 있다.” 라고 적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의 편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가사’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수치로 추정된 것이지 그들이 실제 ‘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남녀평등의 이론으로서 공부해 온 여성학의 학문적 내용들을 가정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고, 여성들은 점차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전통적이지도 양성평등적이지도 않은 신가부장적 가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편 가르기해 어느 일방에서 극단적인 논리와 주장을 펼쳐가는 남녀평등의 전개는 아니었으면 한다. 건강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요즘 가정학자들은 가정체계의 유지를 통해 모든 가족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인간적인 이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정철학을 정립해나가는 가정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앤 오클리 저, 문숙재 역(1996).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Tashakkori A. & C. Teddlie 공저, 염시창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질적, 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학지사.

통계청([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